



진안사랑장학재단 고영민 이사, 마스크 쾌척

(재)진안사랑장학재단 고영민(48) 이사는 6일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2만5,000장(750만원 상당)을 군청을 방문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후원했다.

고영민 이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난 6월 고영민 이사 가족은 진안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으로 받은 100만원을 진안사랑장학재단에 기부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취약한 관내 어르신 및 아이들 위해 지원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 홍보

남원경찰서(서장 강태호)는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특히,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심수정을 포함해 중앙지구대와 도동지구대 등 관내 5지역에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임을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했다.

서승현 경비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잠재적 살인행위와 같다 2개월간의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 중 지속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전복소방 훈련 공모대회서 2팀 수상

남원소방서는 전복소방본부가 주관한 현장에 강한 전복소방 훈련 공모대회에서 훈남팀(훈련이 남다른 팀) 1팀과 아차팀 2팀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대회에는 36팀이 참여했으며, 남원소방서 훈남팀(훈련이 남다른 팀)은 금제119안전센터 2팀 임현래 팀장의 주도로 원통화재의 신속한 호스연장 훈련을 선보였다.

또한, 아차팀은 인일센터 1·2팀에서 야생동물 출현 시 각종 대응방법, 고소작업 시 추락위험 현장 개인안전 확보 훈련을 시연했다.

김광수 서장은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될 수 있어 평상시에도 실천 같은 훈련으로 긴급상황에 신속하고 강한 소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코로나 블루 함께 극복해 나가요”

호원대 진로심리상담센터, 재학생·교수 대상 ‘마음방역챌린지’ 프로그램 진행



호원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센터장 이미영)는 11월 20일까지 전체 재학생 및 교수를 대상으로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마음방역챌린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음방역이란 마음의 고통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1차에는 103명이 참여해 집단별로 SNS를 통한 식물 공유를 진행했고, 현재 2차 집단에서 진행 중이다.

특히, 항공관광학부에서는 지도교수(김점남 교수)와 학생들간의 소통 공간에 강희성 총장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교수님의 추천으로 마음방역챌린지를 소개받았다”며 “자신은 없었지만, 그

것보다 잘 키울 수 있다는 마음이 더 커서 흔쾌히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강희성 총장은 참여한 전체 학생들의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들어주며 따뜻하게 격려했다.

또한 강 총장은 학생들에게 ▲감사한 마음 갖기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하기 ▲잠깐이라도 운동하기 ▲취미 생활하기 ▲식물 잘 키우기를 강조했다.

한편 마음방역챌린지는 앞으로 2차와 3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미영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스트레스, 무기력 등의 심리적 변화를 극복하고 희망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경찰, 아동보호 유공 아동안전 지킴이 감사장

군산경찰서(총경 최홍범)는 6일 경찰서장실에서 아동보호 활동 유공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하여 경찰서장 감사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평소 아동안전에 대한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아동보호에 앞장선 아동안전지킴이 백모(73)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공로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지난 7월경 학교운동장에서 그네 놀이하던 김모(8)양이 실수로 땅에 떨어지면서 머리에 피를 흘리는 것을 학교 주변 순찰중 발견해 신속히 응급처치 후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생들이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 주변에 배치되어 소공원과 외진골목길 등 학생들이 위험한 지역을 순찰하며 돌발상황 발생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남원소방서, 남원통계청 실무자 소방안전교육

남원소방서는 6일 통계청 남원사무소 실무자(18명)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실무자의 재난예방 및 위기관리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화재의 위험성 및 소화기 사용법, 119 신고방법 및 완강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어렵지만 중앙정부 인사역신처에서는 언제 어디에서라도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 국민과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국자유총연맹 진안군지회,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이웃 나눔

한국자유총연맹 진안군지회(회장 배병선) 소속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단장 고연숙)은 추석을 앞두고 용담면 복지문화센터에서 용담면 어르신을 대상으로 머리 염색 봉사를 실시해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매년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은 미용실이 없는 용담면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 미용 염색 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주위의 칭송이 자자하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봉사자 10여 명이 참여했으며 20여 명의 어르신들께 머리 염색을 해드리고 함께 겪어 없는 이야기를 나누며 특별한 추억과 젊음을 선물했다.

배병선 회장은 “코로나19 더욱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어르신들이 예쁜 용모로 추석을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나눔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재준 용담면장은 “용담면을 찾아와 이, 미용 봉사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해주시는 자유총연맹진안군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진안군지회는 배병선 회장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사회적 약자인 소외된 이웃에게 재능기부 나눔 행사를 매년 실시하면서 품목 사업인 동네행복지킴이 활동이 미약하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과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의회 조준열 의원, 고향사랑 시인으로 등단

조준열 진안군의회 행정운영위원장이 표현문학 제76호 가을호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지난 5일 진안군의회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전설의 이팝나무 꽃’의 2편을 출품해 신인문학상 시부문 신인상에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심사평에서 “시인은 정서가 맑고 아름다워 서정시의 품격이



매우 높다. 깊은 산골 서경묘사가 뛰어나며 인간미풍기는 정리가 시 속에서 풍성하다”며 선정배경을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오랜 기간 꿈꾸던 등단을 이루게 되어 만감이 교차한다”며 “아름다운 고향과 부모에 대한 효를 다양한 작품으로 풀어내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진안군의회 운영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 위원장은 30여년이 넘는 공직경험을 토대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알림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2학기 원우모집= 과정명: 스피치기법과·스피치최고지도사과·웃음치료과, 매주 1회(야간, 주간 수업), 대상: 대학생, 성인(일반인), 문의: 285-6676, 281-7246, 010-7304-5665.

